



윤수일



김창완

내달 24일 윤수일밴드 40주년 콘서트 “세월이 화살 같다는 말 실감나네요”

“벌써 40년이 됐는데 세월이 화살 같다는 말을 실감합니다.” 히트곡 ‘아파트’와 ‘황홀한 고백’으로 큰 인기를 끈 가수 윤수일이 14일 YTN공개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로 데뷔 40주년을 맞은 소회를 이렇게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오는 4월 24일 서울 서대문구 흥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여는 ‘2016 윤수일밴드 40주년 콘서트’를 앞두고 마련됐다. 그는 “1973년 가방 하나 둘러메고 서울 스키장 극장 앞에 떨어져 지금까지 왔다”며 “1970년대 초반은 그룹들의 전성시대였다. 기라성 같은 국내 그룹 중 한 곳을 선택해 제일 막내로 들어갔는데 그게 음악의 시발점이었다”고 음악 인생을 되짚었다. 또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혼혈이란 편견에 시달리는 아픔도 있었지만 음악을 통해 극복할 수 있었다고 돌아봤다. “중학교 때부터 음악을 시작했어요. 하나뿐인 아들이 기타만 연주해 어머니의 반대가 무척 심했죠. 하지만 다문화라는 개념도 없는 사회에서 편견 속에서 성장하며 제겐 기댈 곳이 없었어요. 문제가 야기되기도 했고 폭력도 행사했는데 음악을 통해 순화할 수 있었죠.” 윤수일은 1976년 밴드 ‘골든 그레이프스’ 멤버로 가수 활동을 시작했다. 이어 1977년 ‘윤수일과 송사탕’이란 그룹으로 ‘사랑만은 앓겠어요’가 담긴 첫 앨범을 발표했다. 그러나 멤버들과 음악적인 견해 차로 내분이 휩싸이며

윤수일밴드를 결성했다. 이국적인 외모의 그는 1982년 발표된 ‘아파트’를 비롯해 ‘황홀한 고백’, ‘유랑자’, ‘제2의 고향’ 등 많은 히트곡을 내며 여성 팬들의 큰 사랑을 받았다. 최근 tvN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서는 라미란이 ‘황홀한 고백’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다. 그는 “‘황홀한 고백’을 무반주 상태로 부르는데 굉장히 재미있게 봤다”며 “극중 목 꺾기 춤이 나오는데 ‘황홀한 고백’이 가요로는 최초의 군무 작품으로 당시 최고 안무가를 찾아가 그 춤을 만들었다”고 소개했다. 또 직접 만든 ‘아파트’에 대해서는 “1980년대 초에는 잡실에 아파트가 드문드문 있을 때였다. 당시 아파트가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시대였다”며 “이 곡은 아파트에 사는 한 여인에게 실연당한 내 친구의 사연을 담았다. 많은 후배가 아파트를 불렀는데 그중에서도 김건모가 부른 ‘아파트’가 제일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 그는 “40년이면 강산이 네 번 변한다”며 “음악을 평생 했고 앞으로도 할 예정인데 음악적 슬럼프가 왔을 때 힘들었다. (‘아파트’, ‘황홀한 고백’ 등과 같은) 국민가요가 나온 후 그보다 좋은 음악으로 사랑받을 수 있을까 고민할 때 가장 힘들었다”고 속내를 내비쳤다. 또 “현재 기획사를 설립해 후배들을 양성하고 있다”며 “K팝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세상이 도래했으니 한류 문화에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영화 출연 제안도 받았다는 그는 “그를 활동하는 청년을 돕는 할배 역할을 맡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공연에서 대표곡들과 지난 2014년 12월 발표한 24집 ‘부산의 노래’ 수록곡을 선보일 예정이다. 관람료 9만~11만원, 문의 1544-1555, 1588-7890. /연합뉴스

KBS ‘TV 책을 보다’ MC 맡아 “매일 함께 책 읽는 계기 됐으면”

“우리는 늘 책, 공부에 빚진 사람처럼 읽어요. 책 이야기만 나오면 빚쟁이에 쫓기는 듯한 기분을 느끼고 그러니 책과 점점 멀어지죠. 책에 대한 기억이 아주 사라지기 전에 책에 대해서, 책 읽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 책을 권하는 것이 있는 삶이 얼마나 향기로운가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가수이자 배우인 김창완(62)이 우리에게 책을 권한다. KBS 1TV ‘TV 책을 보다-김창완과 책읽기’를 통해서다. 대대적인 개편과 함께 지난달 22일부터 이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은 김창완은 14일 서울 마포구의 한 서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프로그램은 이 책이 이렇다, 저 책이 이렇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다”라며 “미지의 땅으로서의 책, 나 자신을 대면하게 하는 거울로서의 책, 친구 같은 책... 우리를 있게 했던 책을 다시 찾자는 것”이라고 이 프로그램을 설명했다. ‘TV 책을 보다’는 매주 6명의 일반인 ‘독서가’에게 한 권의 책을 전달한 뒤 그들이 책을 읽는 모습, 책을 보며 느낀 감상 등을 카메라에 담는다. 이미 책을 읽은 전문가들로부터 요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함께 책을 읽어나가는 ‘독서의 과정’을 되찾는다는 취지다. 네덜란드의 ‘슬로우 TV’와 같은 ‘슬로우 리딩’이 이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바다. 그 또한 책과 멀어졌었다고 밝힌 김창완은 이 프로그램을 맡은 것을 계기로 다시 독서를 시작했다. “책으로 소통을 하긴 어렵겠지만 온기를 느낄 순 있어요. 읽다 보

니까 나를 생각해주는 것이 가족과 친구뿐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의 저명한 교수도, 먼 나라의 소설가도, 우리 문단의 아름다운 작가들이 다 나를 생각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 고마움을 책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느낄까 싶을 정도예요.” 그는 “요즘 참고서는 중요한 부분에 형광펜까지 쳐서 나온다고 하더라”며 “결과와 결론을 위한 책, 공부를 위한 책이라는 고리를 끊어내 보고자 한다”고 했다. 최근 2016년 첫 싱글 ‘시간’을 발표한 김창완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내 방을 흰색으로 칠해주요’, ‘청춘’, ‘백일홍’과 함께 ‘시간’까지 노래 4곡을 불렀다. ‘시간’은 ‘아침에 일어나 들니를 들고 잠시 어떤 게 아래쪽인지 머뭇거리는 나이가 되면 그때 가서야 알게 될 거야’라는 독백으로 시작한다. 김창완은 “실제로 마지막에 임종하면서 내 아들, 가까이 있는 젊은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라며 “내용도 내용이지만 옆에 앉아 손잡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그런 느낌을 담고 싶었다. 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기분을 나누고 싶다”는 속내를 전했다. 프로그램을 맡은 조정훈 KBS PD는 “독서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권하고 싶다”고 김창완을 진행자로 섭외한 이유를 설명했다. 조 PD는 “프로그램에 나오는 일반인 독서가분들이 저허가 묻지 않아도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나누고 싶어한다는 점이 고무적”이라며 “시청자분들이 하루에 한 페이지라도 매일, 함께 책을 읽어나가실 수 있다면 좋겠다”고 밝혔다. ‘TV 책을 보다’의 방송은 매주 월요일 오후 11시40분.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1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5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list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Table with 4 columns: EBS1, EBS2, EBS3, EBS4. Rows list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16일(음 2월 8일 丁酉). A horoscope section with zodiac signs and their corresponding fortunes.